

〈문제 1〉‘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공감’(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다’는 뜻이다.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개인적으로는 선량한 사람이고 유태인을 돕는 사람이지만 국가의 명령 아래에서는 유태인 학살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해 아이히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다는 사실을 긍정한다. 이는 유태인의 죽음을 앞둔 두려움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그가 학살을 지지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나 의 화자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와 자유롭게 노니는 비둘기와 비교하여 포스터 속의 비둘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와 같은 말을 통해 그 비둘기에 공감을 하고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을 죽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뤼카온의 살려달라는 애원을 무시하고 파트로클로스, 아버지, 어머니, 자신 모두를 포함한 인간은 모두 어차피 죽을 존재인데 왜 슬퍼하느냐며 이에 대해 반문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시문 가와 비교하여 볼 때, 아이히만과 아킬레우스 둘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포,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였고 결국 살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아이히만은 그 살인을 국가의 명령이었다고 정당화한 반면 아킬레우스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정당화를 시도한다. 또한 제시문나와 비교해볼때, 나의 화자는 포스터 속 비둘기에 공감하여 안타까움, 불쌍함을 드러내지만 다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여 안타까움, 불쌍함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살인을 한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공감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는 뤼카온, 개인의 죽음을 앞둔 공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였지만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904자)

1번문제 채점

- 완벽하게 다 맞아버렸습니다. 딱 한 문장만 더 쓰면 정말 좋았습니다. 뤼카온은 아킬레우스에게 공감을 받아서 스스로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내용을 더 쓰면 1000자가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이 내용까지 합치면 출제의도에 그대로 부합하는 우수답안 수준입니다.

〈문제 2〉‘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개인적으로는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국가의 명령 아래에서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사람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그가 유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공감이 없어서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가 집단체제 안에서 온전한 주체로서 자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온전한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었다면 그는 평소처럼 오히려 유대인을 도울수도 있었다. 그가 온전한 주체로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없었고 이는 폭력으로 이어졌다.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보편적인 인간 생명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튀카온 개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개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상상력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가 튀카온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서 튀카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상상력이 있었다면 그가 튀카온에게 공감을 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기에 결국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공감은 자립적 주체로서의 인식과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상상력 두 요소가 갖춰져야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감의 여부가 곧 폭력의 여부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은 이 두 요소를 갖추었고 따라서 공감을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우선 그는 어머니가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상상하였는데 이 상상을 통해 그는 강도를 포함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 이해했고 용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연구하며 타인에게도 용서를 베풀것을 주장하며 자립적 주체로서의 인식도 갖추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시문 라의 워딩턴처럼 위의 두 요소를 갖추어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866자)

2번문제 채점

아이히만은 주체성이 없었고 폭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맞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상상력이 없었고 폭력을 사용했다는 점도 맞았습니다.

워딩턴은 아킬레우스와 반대로 상상을 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맞았습니다.

아킬레우스와 워딩턴의 주체성, 아이히만의 상상력에 대해 언급하는 2문장만 더 있었으면 역시 완벽한 우수답안입니다. 866자로 다소 글자수가 모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발문에서는 분명히 3개념을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 다, 라에 3개념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워딩턴에 대해서 서술했던 것처럼요.